

전국 수필가대회 광주서 열린다

오늘 상무지구서 ‘국내 심포지엄’ 회원 200명 참석 내일까지 이틀간 AI 관련 저작권 토론폰·공연 등 행사 소쇄원 등 가사문학관 일대 탐방도

한국수필가협회는 지난 1971년 2월 12일 창립된 한국 수필문단의 주춧돌과도 같은 문학단체다. 이전에도 다수 수필들이 창작되고 작품집이 출간됐지만 수필가들의 공식적인 단체가 창립됨으로써 더욱 활발한 창작의 토대를 갖추게 됐다.

이처럼 한국수필가협회는 한국 수필문학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 2021년에는 한국수필 50년을 담은 ‘한국수필 백서’를 발간해 반백년의 역사를 정리하기도 했다.

올해로 창립 만 54주년을 맞은 협회가 전국적인 행사인 국내 심포지엄을 광주에서 연다.

한국수필가협회(이사장 권남희)는 ‘제44회 한국수필 국내 심포지엄’을 19일 오후 3시 서구 상무지구 라마다호텔 연회장에서 ‘품격 높은 문학 수필의 진수’를 주제로 개최한다.

전국 수필가 회원 200여 명이 참석하는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생성형 인공지능과 관련된 저작권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을 비롯해 수필가 공연, 제44회 한국수필문학상 시상식, 무등산 시가문학관 일대 문학기행 등을 이틀에 걸쳐 진행한다.

먼저 19일 오후 3시 박원명화 수필가(사무총장)의 사회로 시작하는 1부에서는 권남희 이사장(한국수필 발행인)의 인사말, 이근모 한국문인협회 광주문협지부 회장(시인)의 환영사가 있을 예정이다.



지난해 강화군에서 진행된 제 43회 한국수필가대회 모습.

〈한국수필가협회 제공〉

이어 최원현 수필가(협회 명예이사장·평론가)가 좌장을 맡아 심포지엄이 펼쳐진다.

한지영 한국저작권법학회 회장(조선대 법사회 대학 학장)이 ‘생성형 인공지능에서 저작권 쟁점’을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자연의 수필가(명예이사장·문화과학 발행인)가 ‘인공지능은 머지않아 사람이다’를 발표한다.

이후에는 지정토론이 예정돼 있다. 전수림 수필가(부이사장), 김무용 수필가(협회 운영이사)가 발표에 대한 토론을 이어간다.

심포지엄이 끝난 후에는 특별공연이 펼쳐진다.

신석정 원작 ‘못다 부른 목가(牧歌)’를 박원명화 수필가가 각색, 연출한 작품이 무대에 올려진다. 엄혜순, 송용식, 김무홍, 최북희, 박양호, 김중숙, 오서진, 정옥순, 윤연자 등이 출연한다.

이어 2부 순서로 ‘제44회 한국수필문학상 시상식’, ‘2025년 한국수필 상반기 신인상 시상식’이 개최된다.

시상식은 서금복 수필가(월간 한국문학 편집장) 사회로 진행되며 최원현 명예이사장의 심사평(심사위원 정호병, 최원현, 권남희)이 발표된다.

수필문학상 수상자인 함순자(초이의 노래), 윤

소천(가슴만 남은 숲대) 수필가에게 상이 주어진다. 수상 소감이 끝나면 이수 수필가와 송태호 수필가가 수상 작품을 낭독할 예정이다.

곧이어 신인상 시상식도 열린다.

최정은, 안병진, 추미애(1월), 송민후, 김성룡, 김기일(2월), 정목영, 정구섭, 김경숙(3월), 고미현, 이정희, 이창환(4월), 박만식, 금우동(5월), 이병희, 김미란(6월) 수필가에게 신인상이 수여된다.

이튿날인 20일에는 협회 차원의 문학기행이 펼쳐진다. 전국에서 모인 회원들은 무등산, 원효사, 소쇄원, 가사문학관 일대를 탐방할 예정이다.

권남희 이사장은 “이번에 한국수필 국내 심포지엄을 문향(文鄕) 광주에서 열게 돼 감회가 새롭다”며 ““품격 높은 문학 수필의 진수”라는 주제처럼 수필의 묘미를 보여줄 수 있는 알찬 행사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최근 협회가 발행한 월간 ‘한국수필’에는 얼마 전 작고한 전 광주수필문학회장 장정식 수필가를 추모하는 특집이 마련돼 눈길을 끌었다. 김영월, 류인혜, 박원명화, 신정임, 윤소천, 최원현, 최은정, 한영자, 황옥주의 글이 실렸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항일운동의 현장 올린 고려인들의 합창

광주 고려인마을 ‘아리랑가무단’ 소안항일운동 추모제 공연



제34회 소안항일운동 기념추모제에 참석한 광주 고려인마을 아리랑가무단 단원들의 모습.

〈광주고려인마을 제공〉

고려인의 디아스포라 서사를 담은 합창이 항일운동의 현장을 올렸다.

광주 고려인마을 소속 아리랑가무단이 지난 17일 완도군 소안면에서 열린 제34회 소안항일운동 기념추모제 무대에 올라 감동의 공연을 선사했다. 이번 행사는 일제강점기 조국 독립을 위해 맞서 싸우며 ‘불령선인’이라 불렸던 소안도 주민들의 뜨거운 항일정신을 기리고, 그 고귀한 희생을 계승하기 위해 마련됐다. 소안도는 3·1운동 이후 전 주민이 독립운동에 동참한 ‘태극기 섬’이자 항일의 섬으로, 전남 지역 항일투쟁의 상징적 공간으로 평가받는다.

이날 아리랑가무단은 창작곡 ‘고려아리랑’을 합창으로 선보이며 고려인의 아픔과 민족적 자긍심을 노래했다. 이 곡은 일제강점기와 강제이주 속에서도 정체성을 지켜온 고려인의 서사를 담았다.

“민족의 노래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담은 절절한 선율은 항일의 섬 소안도의 역사와 깊은 울림으로 겹쳐졌다.

행사에는 김석기 광주지방보훈청장을 비롯해 신우철 완도군수, 김광선 소안항일운동기념사업회장 등의 인사가 자리했다.

고려인마을 신조야 대표와 마을 지도자, 관광청 관계자 등 90여 명이 함께 참여해 역사적 의미를 더했다.

신조야 대표는 “소안의 독립정신은 고려인의 항쟁 역사와도 맞닿아 있다”며 “이번 무대를 통해 우리 민족이 겪은 고통과 연대의 기억을 공유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광주 고려인마을은 이번 공연을 계기로 소안면과 항일 역사 계승을 위한 문화 교류와 공동 기념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서울 도심에서 ‘세계인의 책 잔치’

서울국제도서전 22일까지 코엑스…17개국 530여개 단체 참여

서울 도심에서 열리는 세계인의 책 잔치 서울국제도서전이 18일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막해 오는 22일까지 닷새간의 일정에 돌입했다.

올해 주제는 ‘민을 구석’이다. 점점 살기 팍팍해지는 현실 속에서 각자의 ‘민을 구석’을 도서전에서 찾아보자는 취지다.

한국을 포함해 17개국의 530여 개 출판사와 출판 관련 단체 등이 도서전에 참여한다. 사우디아라비아, 프랑스 등 해외 16개국 100여 개 출판사와 단체는 국제관 부스를 운영하며 국내관에선 430여개 단체가 참여해 북마켓, 도서 전시, 강연, 사인회, 북토크를 진행한다.

도서전 얼굴격인 주빈은 대만이다. 천쉼·천쓰홍 등 대만의 유명 소설가, 그림책 작가, 만화가 등 30여 명의 작가와 26개 출판사·기관이 참가한다.

첫날인 18일에는 윤철호 대한출판문화협회 회장 등이 참석하는 개막식을 시작으로 백희나 작가

가 참여하는 ‘작가와와의 만남’, 심보선 시인과 서운 후 시인이 함께 진행하는 북토크, 신간 ‘요리를 한다는 것’을 선보이는 최강북 요리사의 강연, 소설가 강화길과 박서련의 신간 발표 행사, 대만 작가 우밍이의 강연 등이 잇달아 열렸다.

프랑스, 한국, 베트남, 캄보디아 출판 시장의 동향과 트렌드를 살펴보는 세미나도 개최된다. 오후 5시에 시작되는 ‘한국에서 가장 좋은 책’ 시상식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참석해 시상자로 나서고 축하사도 한다.

이 밖에 작가와 독자의 추천작 400권의 도서를 진열한 ‘민을 구석’ 주제전시, ‘한국에서 가장 좋은 책’ 전시도 볼 수 있다.

축제의 서막이 올랐지만, 한편에서는 도서전의 사유화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다.

한편 이번 도서전은 대한출판문화협회와 ㈜서울국제도서전이 공동으로 주최한다.

/연합뉴스

생명 사상으로 바라본 농촌 풍경

농부시인 송만철 시인, 6번째 시집 ‘저물녘’ 펴내

지난 1996년 ‘불교문예’로 등단한 송만철 시인이 시집 ‘저물녘’(천년의 시작)을 펴냈다.

6번째 작품집인 이번 시집은 농촌의 정서, 흙의 정서 등을 엿볼 수 있는 작품들이 다수 담겼다. 고흥 출신의 그는 현재 농사일을 하며 광주전남작가회의 회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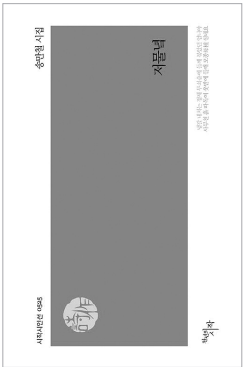
농부시인이라는 타이틀이 어색하지 않는 그는 “한사코 살농척(殺農척)을 고집하는 시대”에서 결코 여전히 생명과 생태의 귀함을 몸소 받들고 있다.

모든 것이 자본화되고 계수되는 오늘날의 시대에

과연 농부시인에게 시란 무엇이며 어떤 의미를 지닐까. “풀잎 한 줄기, 물 한방울 살려 내지 못한” 그 저 무가치한 율조림에 지나지 않을지 모른다.

그러나 그럼에도 그의 시는 근기를 지향한다. 본질과 가치라는 생명에 젖줄을 대고 있는 것이다.

“수십 년 일궈 온 논들이 파헤쳐지고/ 수억 년 뿌리내린 바구덩이 작살내서 실려 갔다// 봉화산 남서쪽 아래 마을 골 골 생김대로 흘렀던 물길/ 인자 생태 하천 복원 공사로 고속화된 하천이 되었다…”



‘생태 하천’이라 부를 수 있을지, 화자는 못내 아쉬울 따름이다.

한편 임동학 시인은 송 시인을 가리켜 “한 집 건너 서너 집이 폐가인 고향 마을 한 귀퉁이 어느덧 농부 시인이 되어 있는 ‘몰랑집 아이’”라고 평한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www.e-dk.co.kr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가전이 한 곳에!

스탠드 공기청정살균기

제습기

벽걸이 공기청정살균기

레인지후드

전기쿡탑

공기청정살균기 | 공기청정기 | 공기순환기 | 제습기 | 레인지후드 | 전기쿡탑

판매 및 A/S 문의 1544-1154